

# 朴扶榮 先生님

「元來 實業家の 三男으로 攻玉小學校(當時 私立學校로서 國民學校 課程인에도 韓國式軍事教練을 시킨 民族魂이 담긴 學校였다)를 거쳐 1937年 培材를 卒業 將來를 實業方面에 둔 關係로 延禧專門商科(延世大)에서 修業하였으나 卒業年度인 1930年 日本濱口內閣 當時 金解金(지금의 貨幣改革)으로 一大不況이 모라닥치자 우리나라 亦是 그 影響圈內에 陷入되었던 關係로 親知의 勸告로 擇한것이 京城齒科醫專入學, 이것이 原點이 되어 40有餘年이란 全生涯를 齒科醫로서 經世한 오늘날 “Time is an arrow” 歲月 如矢라함을 새삼되세진다.」 찾아간 無壽無孀子에게 齒科醫師가 된 緣由를 說明하시는 朴扶榮先生님은 自身의 늙어가는 모습을 거울속에서 發見하신다면서 破顏大笑 하신다.

「元來 天性이 動的인 所致인지라 그래서인지 齒科醫로서의 活動보다는 教育方面에 活動이 오히려 比重이 더 했던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老紳士風의 朴扶榮先生님은 6.25戰亂時 釜山避難에서 收復하여 焦土化된 齒大再建을 爲한 委員會의 一員으로 齒大再建에 着手하여 作故하신 朴明鎭學長을 中心으로 朴述音, 嚴敬燮, 朱榮謨, 諸氏와 더불어 齒大復舊整備에 總力を 傾注하셨고 然後 母校인 培材에서 亦是 財團理事로서 學校再建에 盡力하였으니 이제가 바로 1950年-56年代였다고 當時를 回顧하신다.

6.25當時 傀儡軍이 侵入, 短刀를 들이대면서 培材學校를 接受하려고 할때 培材百年의 傳統의 殿堂을 다른 아무 目的에도 使用될수 없다고 抗拒하며 가슴을 해치고 찌르라고 하니 차마 찌르지는 못하드라는 것이다. 그 後 亦是 母校인 攻玉小學校同窓會會長이었고 한便 서울市齒科醫師會 財務理事에서 副會長으로 서울齒大同窓會副會長을 歷任, 生涯中 가장 奔忙스러웠던 時節이었으니 이것이 1970年 前後 時節이었다.

그 當時 社會相이란 戰亂의 後遺症으로 混濁과 混亂이 相乘되어 社會의 正義, 個人的 道義觀念이란 찾을길 없고 名譽와 權勢 虛榮만을 追求하는 무리와 良心과 正道를 깨닫지 못하는 무리로써 거리는 넘쳐흐르고 眞實이 이르는 곳마다 詰박하고 있었음은 實로 慨嘆不禁의 社會相이었다. 이에 朴扶榮先生님은 느낀바 있어 國家社會百年大計를 爲하여, 라면 나라의 棟樑이요 礎石이 될 人材養成만이 急先務라는 信念下에서 人格形成과 眞實을 判斷하는 判斷力養成에는 亦是 教育振興 뿐이라함을 切感, 一個齒科醫로써 中高等教育方面에 全力投球的인 努力을 傾注하였으며 現在 培材中高校 學校法人 財團에서 三選理事로써 育英事業에 從事하여 培材以來 培材에 이르는 繼續年數 20餘年間이란 歲月, 近萬名의 俊才를 社會各方面에 送出하고 있다고 하신다. 年前에 培材財團으로 부터 受領한 教育巧勞賞은 筆者微力の 比하여 過賞이라고 겸손해 하신다.

『이 時點에서 後輩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觀」을 가자라는 것이다. 平素 研磨한 知識과 教養과 經驗을 土臺로한 確固한 觀이 서야겠다는 말이다. 例컨대 教育觀, 社會觀, 民族觀, 國家觀 等等 觀이 설때, 於始乎, 事物의 對한 達觀에 境地에 到達하게 된다』는 것이다.

當年 71歲의 健康한 모습의 朴扶榮先生님은 夫婦가 偕老하시고 無男獨女이며 婿郎은 서울大 醫大 教授 李惟信 博士이시다.



**KUM KANG**  
Dental Lab

移轉盛業中입니다

(21) 0673 (21) 0095



금강치과기공소

대표 조동환

서울·종로구중로 5가 231-9

대원빌딩 302호

이규명 치과의원 옆